SIGNATURE FINALE Secret

수능 직전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지

〈빠른정답〉

1	④	2	①	3	⑤	4	③	5	①
6	④	7	①	8	①	9	③	10	②
11	⑤	12	②	13	③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②	22	⑤	23	②	24	③	25	⑤
26	③	27	⑤	28	②	29	③	30	②
31	①	32	④	33	②	34	⑤	35	②
36	④	37	③	38	③	39	⑤	40	①
41	④	42	④	43	⑤	44	③	45	④

21 - ②

[Words] by virtue of: ~에 의해서 genetically: 유전 공학적으로 upright: 직립한 prominent: 돌출한 fluid: 유동체 hierarchical: 계급에 따른

[해설] 21번 의미추론 유형의 핵심은 '유기성'에 기반하여 밑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차별성'은 '유사성의 그림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차별성와 유사성'의 관계에 대한 지문의 서술을 연결하며 밑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지문은 '차별성'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대상들이 비교 대상에 따라 '유사'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지문은, 키가 큰 남성과 키가 작은 남성은 '키'라는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여성'이라는 새로운 비교 대상이 등장했을 때는 '성별'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하고, 남성과 여성은 '성별'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침팬지'라는 새로운 비교 대상이 등장했을 때는 '종'이라는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서술한다. 정리하면, 지문은 차별성과 유사성이 관점과 비교 대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밑줄의 의미는 '유사성은 관점과 비교 대상에 따라 차별성으로 바뀔 수 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선지를 보면 '관점과 비교 대상에 의존하는 유동체'인 2번이 정답이다.

24 - ③

[Words] app: application의 약어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brand-new: 아주 새로운 fertile: 비옥한 stuff: 물건, 물질 incorporate: 결합하다

[해설] 대의파악에서 난도가 있는 문항은 선지 판단에서 '논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항이다. 해당 문항은 'Internet'(A)과 'Web'(B)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웹과 인터넷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웹과 인터넷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지문의 논지이다. 'The Internet is a brand-new fertile ground where things can grow'에서 알 수 있듯 인터넷은 '비옥한 땅'이다. 즉, 어떤 사물이 생겨날 수 있게 하는 모체의 역할이고, 웹은 그곳에서 탄생한 시초 피조물('the first thing that grew there')이라는 것이다.

‘A와 B는 동일하지 않고 A가 B를 포함하고, A가 B를 파생한 관계임’을 기준으로 선지를 보면 정답은 ‘웹은 인터넷의 초기 산물이다’인 3번이다. A와 B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5번 선지가 매력적인 선지인데, 인터넷의 모체가 웹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다.

29 - ③

[Words] overwhelming: 매우 힘든, 견디기 어려운 encyclopedic: 박학다식한 stake: 내기에 건 돈

[해설] 관계대명사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고, ‘전치사 +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그러므로 3번 which에서, 뒤의 ‘we are to make the decisions’은 그 자체로 성립하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ich는 from which로 바뀌어야 한다. 2번, 4번 정도가 매력적인 오답인데, 2번의 ‘to be’는 for 이하를 의미상의 주어로 취하여 ‘It’에 대한 진주어로 기능하고, 4번의 ‘making’은 ‘listening’과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법상 적절하다.

31 - ①

[Words] demonstrate: 증명하다 sophisticated: 정교한 practicality: 현실성

[해설] 해당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험 내용을 잘 독해하여 재진술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빈칸은 한 정치 과학자가 행한 실험이 밝힌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뚫려있다. 지문에서 빈칸 문장과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은 ‘But what he found was that a group made up of some smart agents and some not-so-smart agents almost always did better than a group made up just of smart agents’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문장에서 ‘똑똑한 행위자들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뒤에서 ‘selecting a group randomly’과 연결된다. 즉, ‘똑똑한 사람들만 모인 집단’보다 ‘랜덤으로 뽑히더라도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행위자들도 포함된 집단’이 ‘더 나은 결과(positive effects)’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랜덤으로 뽑히더라도 똑똑한 행위자들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행위자들로 구성된 집단을 기준으로 선지를 보면, ‘다양성’인 1번이 정답이다.

32 - ④

[Words] tolerance: 공차(公差), 허용 오차 Commission: 위원회 policy: 정책 residue: 잔여물 manufacturer: 제조사 compromise: 타협 inquire: 문의하다 in question: 문제가 되는 induce: 설득하다 bring about: ~을 유발하다

[해설] 해당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빈칸에 맥락에 맞는 재진술을 파악해야 하고, 빈칸의 주체와 관련된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빈칸은 제조사가 요청한 허용 오차의 설명에 빈칸이 뚫려있다. 지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새로운 화학물질은 법에 의해 동물실험을 거쳐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식약청 과학자들은 이 성분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고, 위원회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잔류물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정책적으로 권고하였다. 하지만, 제조사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위원회에 의한 검토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에서, 빈칸의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빈칸이 설명하는 것은 제조사(A)의 요구이지, 식약청, 정책, 위원회(B)이 요구한 바가 아니다. 지문에서 제조사(A)는 화학물질의 추가적인 검토 및 합법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조사(A)의 요구는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가져올 허용 오차이므로 정답은 ’논의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인 보호를 가져오다‘인 4번이다. 매력적인 오답은 3번인데, 빈칸 문장의 주체는 ’제조사‘이므로 3번 선지는 제조사(A)가 허용 오차를 요청한 의도와 다르다.

33 - ②

[Words] clause: 조항 genuine: 진정한 discrete: 별개의

[해설] 해당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나뉘는 부분이 있다면 A/B로 나눠서 읽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빈칸 주변의 접속어, 부정어를 주의해야 한다. 지문은 '자유'가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한다. 지문에서 제시된 자유가 의존하는 것들로는 크게 'the number of options open to her'(A), 'the quality of the options'(B)로 잡을 수 있다. 지문은 우리가 'extent of options'(B)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문은 B를 'how different the options are'과 'how valuable they are'로 구제화한다. 지문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 어떤 이는 선택들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빈칸)하지 못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빈칸에는 B의 맥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지를 보면 '그들(=options)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을 하다'인 2번이 정답이다.

34 - ⑤

[Words] electromagnetic force: 전자기력 repel: 밀어내다 composite object: 복합체 neutral: 중성의, 자기(磁氣)를 띠지 않은 (neutrality: 중성 상태 neutralize: 중성화하다) ever: 늘, 항상

[해설] 이 지문을 읽을 때는 '지문에서 나뉘는 부분이 있다면 A/B로 나눠서 읽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A와 B는 소재만 대비되지 않고, 설명도 대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한다. 지문은 전자기력(A)과 중력(B)을 대비하는데, 빈칸은 B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빈칸 문장은 '당신은 A를 중성화할 수 있는 것처럼 B를 중성화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의 결론 부분이다. 지문은 '중성화된 composite object'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A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A와 반대로, 중성화가 불가능한 B는 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답은 '늘 우리 경험에 존재하는'인 5번이다. 4번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는데, the latter(A)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힘(onesided)이 아니므로 4번 선지는 오답이다.

36 - ④

[Words] ambiguity: 애매모호함 in practice: 실제로 correlation: 상관관계

[해설] 해당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시적 근거만큼이나 독해력이 중요했던 문항이다. 전통적인 시각 정보의 처리 과정과 밝혀진 시각 정보의 처리 과정을 구분해서 읽고, 같은 내용들끼리 연결했다면 어렵지 않은 문항일 것이다. 주어진 글 두 번째 문장의 시각 피질(visual cortex)은 (C)의 this area에 대응된다. (C)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However'이 등장하여 내용이 전환된다. 전통적 인식이었던 '눈에 이미지가 주어짐 -〉 뇌의 특정 뉴런이 활성화'의 관계가 뒤집혀야 하는데, 이는 (A)에서 '눈이 뇌로 보내는 신호보다 뇌에서 눈으로 보내는 신호가 많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C) 다음에는 (A)가 연결된다. (A)에서 등장한 'brain'의 작용(General)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Specific)이 (B)이다. 박스의 첫 번째 문장은 비유적이지만, (C), (A)를 거치면서 구체화된다. 지문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시각은 뇌로 이미지를 정밀하게 전달하는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뇌가 신호를 보내며 추측을 통해 더 많은 관찰 정보를 모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믿게 된다는 것이다.

37 - ③

[Words] fatigue: 피로 intrinsic: 고유의 counterpart: 상대 circulation: 순환 deficiency: 결핍 acknowledgement: 인정 turn to: ~에 의존하다 will: 의지 neglect: 무시하다 perceive: 인식하다

[해설] 해당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흐름을 구획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히 독해를 하지 않았다면 2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기출 문항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어진 글 두 번째 문장에 나열된 신체의 현상들은 (B)의 'these functions'라는 가시적인 근거를 통해 연결된다. (B)의 두 번째 문장인 '번아웃과 관련된 피로는 그것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the fatigue associated with burnout has its own particular qualities).'라는 문장은 (C) PART의 내용과 재진술로 연결 되어진다

A Fatigue rooted in the will to succeed, to work diligently and go the extra mile, even if it means neglecting one's own basic needs, = the fatigue associated with burnout 이 되는 것이고,

the fatigue is often ignored by the sufferer, perceived as an obstacle to productivity. 이 부분이 its own particular qualities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로라는 것이 그 다음문장에서 'The signal'로 받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the signal이 많은 의무들 사이에서의 소음들로 인해 '실종되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은 (A) PART의 내용과 이어진다.

It (=the fatigue) persists as a feeling of deficiency **which the sufferer tries to silence**, as if giving the body a chance to catch its breath would be an acknowledgement of weakness.

여기서 which the sufferer tries to silence라는 부분이 바로 the signal gets lost 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의 구획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글의 내용상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38 - ③

[Words] cruise: 순항 brake: 브레이크를 걸다 pedestrian: 보행자 intent: 의도 signify: 의미하다, 뜻하다

[해설] 해당 문항을 명확히 풀어내려면 'in addition'이라는 기능어의 논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번 문장은 '차에 타는 사용자'(운전하는 사람)와 자율주행차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차 주인과 차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번 뒤의 문장부터 자동차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낸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3번 문장부터는 '차 운전자와 다른 차 운전자' 간의 관계로, 다루는 대상의 범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번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In addition'의 논리를 이용하여 같은 방향성(자율주행차의 의사소통)이되, 다른 내용(차주인과 자율주행차와의 관계 -〉 자율주행차 주인과 '다른 자동차 운전자와의 관계')을 소개하는 역할로 기능하기 때문에 앞 문장과도 적절하게 연결되고, 다루는 대상의 범위도 매끄럽게 넘어가게 된다.

[코멘트] 'In addition, also, furthermore'는 순서삽입 수업에서도 언급되었듯, 뒤에 같은 방향성이되 앞과는 다른 내용이 등장해야 한다. 최근 이 기능어들을 사용한 문항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틀렸다면 잘 복습해놓도록 하자!

39 - ⑤

[Words] ground: 근거 scarce: 부족한 stem from: ~에 유래하다

[해설] 해당 문항은 기능어 논리를 고려하면서, '글의 구획'/'G-S 구조'를 활용해 풀 수 있다. 주어진 문장은 현실에서 '다른 갈등의 근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제대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4번 문장과 5번 문장의 대립을 느낄 수 있다. 4번 문장의 어떤 사람들은 재산 관계가 '희소성 조건에서만'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5번 문장은 "'일반적으로 토지가 부족하든 부족하든 아니든', 그 토지의 역사나 상징적 중요성에서 비롯된 주어진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There may be disagreements about how a given piece of land should be used, which stem from the history or symbolic significance of that piece of land,)라고 이야기한다. 주어진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해봤을 때 5번 문장은 '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의 예시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고, 여기서 In reality가 역접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코멘트] In reality는 2022학년도 9평 39번에 등장한 적이 있고, 실제로 역접으로 기능했으나 역접과 순접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한 기능어이니 너무 단정적으로 사용하지는 말되 정답의 근거에 정당성을 부여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